

# 중한 실의사동동사문 연구

박은석\*

## <目 次>

1. 서론
2. 사동문의 정의와 구성 요건
3.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와 범위.
  - 3.1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
  - 3.2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이다
  - 3.3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의미 범위
4.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속하는 사동 유형
  - 4.1 분석적 사동
  - 4.2 목적(PURP) 유형 사동
5.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여러 특징
  - 5.1 함의성
  - 5.2 사동자의 통제도와 피사동자의 통제도
    - 5.2.1 사동 의미와의 관계
    - 5.2.2 피사동자 격과의 관계
6.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 6.1 공통점
  - 6.2 차이점
7. 결론

## 1. 서론

---

\* 서울대학교 등 중어중문학과 강사 gracerok@hanmail.net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사동문 중 실의사동동사문을 각각 고찰하고 또한 양자를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나 중국어에서 사동문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한 사동문 대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박사논문으로는 金海月(2007), 朴恩石(2010)을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실의사동동사문<sup>1)</sup>에 대하여 대비 연구를 진행한 것은 朴恩石(2010)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이 독립된 서술어로 표시되며 사동사건을 명령, 허락, 방임, 초래 등의 의미가 있는 實義 서술어로 나타내며 두 서술어의 논항구조가 독립되어 있는 사동”<sup>2)</sup> 구조이다. 중국어에서는 “命諭, 強迫, 允許” 등의 동사로 구성된 사동문을 들 수 있고, 한국어로는 “명령하다, 강요하다, 허락하다” 등의 동사로 구성된 사동문을 들 수 있다. 중한 사동문 대비 연구 중 실의사동동사문에 대한 대비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은 한국어에서 실의사동동사문이 사동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동문 연구의 경우와 달리 중국어 사동문 연구에서는 실의사동동사문을 사동문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도 사동문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특성을 고찰한 후, 양자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동문의 정의와 구성 요건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사동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사동문의 정의와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동문은 세계 언어에서

1) “실의사동동사문”의 중국어 용어는 “實義致使動詞句”(朴恩石(2010))이다. “실의사동동사문”에 해당하는 한국어 문장들은 기존의 한국어 사동문 연구에서 사동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의사동동사문”에 대한 기존의 한국어 문법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도 사동문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의 “3.2.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이다”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2)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3.1.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 부분에 있음.

사동 상황(causative situation) 혹은 사동 사건(causative event)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causative expression) 중의 하나이다. 사동 상황(사건)은 원인 상황(사건)과 결과 상황(사건)으로 구성되는데(Comrie 1981/1989), 원인 상황(사건)은 결과 상황(사건)의 원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他讓我吃飯。

예문 (1)은 원인 사건인 “他讓我吃飯。”과 결과 사건인 “我吃飯。”으로 구성되어 있다. “他讓我吃飯。”은 “我吃飯。”의 원인이다.

그리고 사동 사건에는 사동자(causer)와 피사동자(causee)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자를 사동자라고 하고 피사동 사건의 주체가 되는 자를 피사동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예문 (1)에서 사동자는 “他”이고 피사동자는 “我”이다.

사동문의 의미 요건으로는 위와 같이 사동 상황(사건)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동문의 형식 요건은 기본 문장(basic clause)에 사동자 논항이 더해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Dixon 2000). 기본 문장이란 사동문과 대응되는 비사동문을 말한다.

(2) 他走。

(2-1) 我命令他走。

(3) 그가 밥을 먹는다.

(3-1) 나는 그에게 밥을 먹도록 명령하였다.

예문 (2)와 (3)은 사동화 되기 전의 기본 문장이고, 예문 (2-1)과 (3-1)은 사동자 “我”/“나”가 문장에 들어와 기본 문장을 사동화시킨 사동문이다. 예문 (2-1)과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사동자는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를 차지한다.

사동문의 구성 요건 중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함의성이

사동문의 필수요건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 간에 함의 관계가 늘 성립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 사이에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사동 사건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한다는 것”(Kartunnen 1971, Song Jae Jung 1996 참고)을 가리킨다.

(4) The policewoman killed the terrorist. (Song Jae Jung 1996)

(4-1) \*The policewoman killed the terrorist, but he didn't die.

(Song Jae Jung 1996)

예문 (4)와 (4-1)에서 사동 사건 “The policewoman killed the terrorist.”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 “The terrorist die.”의 진실성을 보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동문에서 우리는 결과의 진실성을 기대하고 묵인한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동문의 원인 사건의 실현이 결과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Song Jae Jung(1996)은 “목적(PURP) 유형 사동”은 함의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목적(PURP) 유형 사동”은 “사동 사건의 실행은 피사동 사건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피사동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서 피사동 사건이 단지 실현되지 않는 목적(purpose)이나 목표(goal)”인 사동이다. 그는 한국어의 “-게 하다” 사동이 “목적(PURP) 유형 사동”이며 함의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5) 그가 나에게 옷을 입게 하였으나 나는 입지 않았다.

예문 (5)에서 “그가 나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라고 하는 원인 사건의 실행이 “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결과 사건의 실현을 보증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익섭과 임홍빈(1983: 217쪽)은 “-게 하다”문이 함의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게 하다”문을 사동문에 넣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함의성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형태적 사동<sup>3)</sup>만이 사동문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형태적 사동은 확실히 “-게 하

다” 사동문 보다 함의성의 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형태적 사동문의 뒤에 부정문을 붙여 결과 사건을 부정한 문장의 경우, “-게 하다” 사동문의 뒤에 부정문을 붙여 결과 사건을 부정한 문장보다는 어색하다.

(6) 그가 나에게 옷을 입혔으나 나는 입지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문 (6)보다는 예문 (5)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형태적 사동의 경우에도 사동문 뒤에 부정문을 붙여 결과 사건을 부정해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7) 철수가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었으나 영희는 보지 않았다.

(8) 아무리 채워도 아이가 자질 않아요. (박정운 2003)

(9) 네가 그렇게 웃긴다고 내가 웃을 것 같으나? (박정운 2003)

예문 (7), (8), (9)는 비함의적 형태 사동문인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문 (7), (8), (9)는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박정운(2003)도 예문 (8), (9)를 정문으로 판단하였다. 박정운(2003)은 “단형사동(본 논문에서 말하는 형태적 사동-필자 주)이 있는 예들이 모순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은 단형사동이 함의적이라고 하는 Patterson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단형사동의 비함의적 특성이 일부 사동형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형사동의 구문적 특성인지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비함의적 형태 사동문인 예문 (7), (8), (9)의 공통점은 피사동사건을 나타내는 동사 “보다”, “자다”, “웃다”가 어휘 특성상 피사동자가 어느 정도 피사동사건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적 사동문 뒤에 부정문을 붙여서 피사동 사건을 부정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형태적 사동문도 함의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있는

3) 한국어의 형태적 사동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간에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을 말하며, 단형사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접미 사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것으로 볼 때 함의성을 모든 사동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함의성만을 근거로 형태적 사동을 사동문 안에 포함시키고 “-게 하다”문은 사동문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함의성을 사동문 구성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 3.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와 범위

#### 3.1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실의사동동사문’은 중국의 중국어 연구자들이 보통 “使令句” 혹은 “使令式”이라고 부르는 구문이다. 郭銳, 葉向陽(2001)은 “使令式”을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독립된 서술어로 표시되며 사동 사건을 명령(중국어 용어는 使令)의 의미가 있는 實義 서술어로 나타내며 두 서술어의 논항구조가 독립되어 있는”<sup>4)</sup> 사동문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명령(使令)’의 사동 실의가 있는 동사문들 외에 ‘허락(중국어 용어는 允許)’, ‘방임(중국어 용어는 聽任)’, ‘초래(중국어 용어는 致使)’ 등의 사동 실의를 가진 동사문들도 있다<sup>5)</sup>. 따라서 朴恩石(2010)에서는 “명령(使令)”이외의 사동 실의를 가진 동사문들도 포괄하기 위하여 “使令句” 혹은 “使令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實義致使動詞句(실의사동동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使令句” 혹은 “使令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使令(명령)”의 사동 실의를 가진 동사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郭銳, 葉向陽(2001)의 “使令式”에 대한 정의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실의사동동사문을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독립된 서술어로 표시되며 사동 사건

4) “致使事件和被使事件分別由獨立的謂詞表示, 致使事件由帶有使令義的實義謂詞充當, 兩謂詞論元結構獨立”

5) ‘허락, 방임, 초래’ 의미를 나타내는 실의사동동사문의 구체적인 예는 “3.3.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의미 범위”에 있음.

을 명령, 허락, 방임, 초래 등의 의미가 있는 實義 서술어로 나타내며 두 서술어의 논항구조가 독립되어 있는 사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실의사동동사문”을 “실의사동동사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은 이 구문들이 모두 “실의사동동사”를 가진 사동문이기 때문이다. 실의사동동사란 순수한 사동 의미 외에 자신의 實義(명령, 허락, 방임, 초래 등)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말한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로는 “命令, 強迫, 禁止, 派, 支派, 指派, 委派, 遣, 派遣, 遣派, 遣送, 請, 求, 請求, 要求, 懇求, 祈求, 乞求, 邀請, 勸, 勸說, 強迫, 脅迫, 指使, 慫恿, 鼓勵, 鼓動, 唆使, 支使, 允許, 准, 許, 准許, 容許, 聽憑, 聽任, 任, 放任, 逼迫, 催, 催促, 驅使, 迫使, 導致” 등이 있고,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로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강요하다, 압박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 격려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순수한 사동 의미 외에 자신의 實義(명령, 허락, 방임, 초래 등)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은 모두 내포절을 가지고 있는데, 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주절에,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내포절에 들어 있다. 그리고 사동 서술어와 피사동 서술어는 각각 자신의 논항을 가지고 있다.

(10) 我請他走。

(11) 나는 그에게 떠나도록 강요하였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인 예문 (10)에서 사동 서술어 “請”은 주절에 들어 있고, 피사동 서술어 “走”는 내포절인 “他走”안에 들어 있다. 사동 서술어 “請”의 논항은 “我”와 “他”이며 피사동 서술어 “走”의 논항은 “他”이다.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인 예문 (11)에서 사동 서술어 “강요하다”는 주절에 들어 있고, 피사동 서술어 “떠나다”는 내포절인 “그(가) 떠나다”에 들어 있다. 사동 서술어 “강요하다”의 논항은 “나”와 “그”이고, 피사동 서술어 “떠나다”의 논항은 “그”이다.

## 3.2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이다

본 논문의 2장 “사동문의 정의와 구성 요건”에서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도 사동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인 예문 (2-1)과 (3-1)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동자(我/나)와 피사동자(他/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 문장에 사동자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사동문의 형식 요건도 만족시킨다. 실의사동동사문인 (2-1)과 (3-1)이 갖추지 못한 것은 함의성 뿐이다.

(2-2) 我命令他走, 但是他沒走。

(3-2) 나는 그에게 밥을 먹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는 먹지 않았다.

예문 (2-2)와 (3-2)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2-1)과 (3-1)이 함의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함의성은 모든 사동문의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동문의 기타 요건은 모두 만족하지만 함의성만 결여하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함의성을 사동문 구성의 필수 요건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도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에는 실의사동동사문을 사동문에 포함시켜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피사동자를 표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으)로 하여금”이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자주 사용하는 피사동자 표지로는 여격조사 “-에게”, 주격조사 “-이/-가”, 그리고 “-(으)로 하여금”이 있다.

(12) 내가 그에게/가/로 하여금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

이 표지들 중에서 “-(으)로 하여금”은 박정운(2003)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피사동자를 나타내는 역할만을 하는 표지이다. 따라서 “-(으)로 하여금”이 어떤 문장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이 사동문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실의사동동사문에 피사동자 표시 “-(으)로 하여금”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실의사동동사문이 마땅히 사동문으로 분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3.3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의미 범위

朴恩石(2010)은 郭姝慧(2004)와 郭銳(2009a/b)의 의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석적 사동 구조가 나타내는 의미를 “초래(致使) 사동의, 명령(使令) 사동의, 허락(允許) 사동의, 방임(聽任) 사동의, 부작위(不作爲) 사동의”로 분석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석적 사동문들 중에서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범위는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 방임 사동의, 초래 사동의”이고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의 범위는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이다.

명령 사동의는 사동자가 피사동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郭姝慧 2004)”<sup>6)</sup>사동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에서 “命命, 強迫” 등의 동사문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13) 我命令他來。

(14) 我強迫他回家。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에서는 “-에게/-가(-이)/-로 하여금 -도록 명령하다, -에게/-가(-이)/-로 하여금 -도록 강요하다”문 등이 명령 사동의를 나타낼 수 있다.

(15) 아버지는 나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

(16) 정부는 모든 기업에 부채 비율을 줄이도록 강요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6) “作出指使和命令”

허락 사동의는 사동자가 피사동자에게 피사동 사건의 실행을 허락하는 사동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 “允許, 准, 許, 准許, 容許”동사문이 허락 사동의를 나타낸다.

(17) 我允許他去。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에서는 “-에게/-가(-이)/-로 하여금 -도록 허락하다”, “-에게/-가(-이)/-로 하여금 -도록 허용하다”문 등이 허락 사동의를 나타낸다.

(18) 그는 나에게 먼저 집에 가도록 허락했다.

(19) 오히려 처벌해야 할 친일민족반역자들을 나라의 지도층에 앉혀 놓고 그들로 하여금 일제잔재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도록 허용했다.

[우리교육 중등용 95년 1월호, 21세기세종계획 말뭉치]

방임 사동의는 피사동자가 피사동 사건을 실행하는 것을 사동자가 그냥 내버려두는 사동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 “聽憑, 聽任, 任, 放任”등의 동사문이 방임 사동의를 나타낸다.

(20) 所以我就不再說什麼, 聽憑他按響了門鈴。

[許建輝, 劉紹棠: 在人生的邊緣讀懂了死, 북경대 말뭉치]

초래 사동의는 “모종의 원인으로 인해 모종의 결과가 발생하는(郭姝慧 2004)”<sup>7)</sup> 사동 상황을 나타낸다. 초래 사동의의 특징은 사동자가 행위자(agent)가 아닌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초래 의미의 사동을 다른 말로 비

7) “由于某种原因而使得產生某种結果”

행위자 사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초래의 사동은 비행위자 사동이기에 때문에 초래의 사동문의 사동자는 주로 추상명사, 사물명사, 사건을 나타내는 절 등이 담당하며, 사람명사는 잘 출현하지 않는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 “導致”동사문 등이 초래 사동의을 나타낸다.

- (21) 這種把研究對象孤立起來進行分析的方式，導致了牛頓力學很難不被引入歧途之中。  
[21世紀的牛頓力學, 북경대 말뭉치]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 “驅使, 迫使”동사문은 명령 사동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초래 사동의을 나타낸다. 아래는 “驅使”동사문이 초래 사동의을 나타내는 예이다.

- (22) 作爲一个女人，好奇心和自信心驅使我走上這條無止境的路。  
[1994年人民日報, 第2季度, 북경대 말뭉치]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중 “逼迫, 催, 催促”동사문은 주로 명령 사동의을 나타내지만 어떤 경우에는 초래 사동의을 나타낸다. 아래는 “催”동사문이 초래 사동의을 나타내는 예이다.

- (23) 創業的艱辛催人淚下。 [1993年人民日報, 5月份, 북경대 말뭉치]

나타낼 수 있는 사동 의미에 따라 여러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5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명령 사동 의미류: “命令, 強迫, 禁止, 派, 支派, 指派, 委派, 遣, 派遣, 遣派, 遣送, 請, 求, 請求, 要求, 懇求, 祈求, 乞求, 邀請, 勸, 勸說, 強迫, 脅迫, 指使, 慫恿, 鼓勵, 鼓動, 唆使, 支使” 등.

- B. 허락 사동 의미류: “允許, 准, 許, 准許, 容許”
- C. 방임 사동 의미류: “聽憑, 聽任, 任, 放任”
- D. 명령과 초래 사동 의미류: (가) 명령>초래: “逼迫, 催, 催促”  
(나) 초래>명령: “驅使, 迫使”
- E. 초래 사동 의미류: “導致”

나타낼 수 있는 사동 의미에 따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들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명령 사동 의미류: “명령하다, 지시하다, 강요하다, 압박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 격려하다” 등.
- B. 허락 사동 의미류: “허락하다, 허용하다” 등.

이상의 분류에서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의 경우와 달리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에는 “방임 사동 의미”류와 “초래 사동 의미”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방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사 “방임하다”와 “초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사 “초래하다, 야기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로 구성하는 문장의 구조가 “-를 방임하다/초래하다/야기하다”로, 단순한 타동사구문이다. 반면 실의사동동사문은 앞의 “3.1.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포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그가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 라는 문장에서 내포절은 “그가 옷을 입다”이다.

따라서 “-를 방임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동사문의 구조는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에게 -도록 명령하다/허락하다”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 “방임하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동사를 실의사동동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사동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사동 의미의 차이에 따라 실의사동동사문의 함의성, 사동자 특징, 피사동자 특징, 피사동서술어 특징 등 제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의사동동사문의 제반 특징과 사동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5.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여러 특징”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 4.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속하는 사동 유형

### 4.1 분석적 사동

Comrie(1981/1989)는 사동문의 유형을 크게 분석적 사동, 형태적 사동, 어휘적 사동으로 나누었다. 물론 Comrie가 사동문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중간 형태, 예를 들면 분석적 사동과 형태적 사동의 중간 형태 혹은 형태적 사동과 어휘적 사동의 중간 형태들이 존재하여 형식상의 연속체를 이룬다고 보았다.

분석적 사동이란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을 각각의 독립된 서술어로 나타내는 사동이다. (Comrie 1981/1989)

(24) I **caused** John to **go**. (Comrie(1981/1989))

예문 (24)에서 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사동 동사는 "cause"이고 피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피사동 동사는 "go"이다.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을 각각 독립된 서술어로 나타내었으므로 분석적 사동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의 "3.1. 실의사동동사문의 정의"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사동 서술어와 피사동 서술어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분석적 사동에 속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실의사동동사문 외에 분석적 사동에 속하는 사동문으로 대표적인 것은 허의사동동사문이다<sup>8)</sup>. 허의사동동사문은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각각 독립된 서술어로 표시되며 사동 사건을 순수하게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

8) 허의사동동사문의 중국어 용어는 "虛義致使動詞句"(孫周延 2006).

내는 虛義 서술어로 나타내며 두 서술어의 논항 구조가 독립되어 있는 사동(郭銳, 葉向陽 2001)<sup>9)</sup>을 말한다. 중국어의 허의사동동사문은 허의사동동사 “讓, 叫, 使, 令, 使得, 致使”를 사용하여 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사동문이다<sup>10)</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5) 我讓他做作業。

(26) 豆腐變餿了, 老婆又先于他下班回家, 這就使問題複雜化了。

[劉震雲, 一地鷄毛, 북경대 말뭉치]

한국어에서는 허의사동동사 “하다”, “만들다”를 사용하여 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게/도록 하다”, “-게/도록 만들다”문이 허의사동동사문이다<sup>11)</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7) 나는 그에게 출석을 부르도록 하였다.

(28) 그 음악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허의사동동사문도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각각 독립된 서술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분석적 사동에 해당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과 허의사동동사문은 둘 다 분석적 사동인데, 실의사동동사문과 허의사동동사문의 차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동 사건을 나타내는 사동 동사가 순수한 사동의 의미 외에도 명령, 강요, 허락 등의 실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Comrie(1981/1989)는 언어학자들이 사동문을 소개할 때 자주 허의사동동사문을 인용하지만 세계 언어에서 이런 순수한 분석형의 사동 구조는 오히려 드물고, 순수한 사동의 의미 외에 “강요” 등의 실의를 가지고 있는 사동문이 더욱 많다고 보

9) “致使事件和被使事件分別由獨立的謂詞表示, 致使事件由純粹表示致使義的虛義謂詞表示, 兩謂詞論元結構獨立”

10) 중국어 허의사동동사문은 중국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광의의) 使字句라고 불린다.

11) 한국어 허의사동동사문은 한국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장형사동문, 통사적 사동문으로 불린다.

았다. 즉, 세계 언어에서 허의사동동사문보다는 실의사동동사문이 더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적 사동 구조 중에서 허의사동동사문만 사동문에 포함시키고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4.2 목적(PURP) 유형 사동

Song Jae Jung(1996)은 세계 언어의 사동 유형을 긴밀(COMPACT)유형, 병렬(AND) 유형, 목적(PURP)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목적(PURP) 유형이 가장 특색이 있다. 목적(PURP) 유형 사동은 비함의성(Non-implicative), 목적성(purpose)과 관계있는 사동이다. 그가 말하는 전형적인 목적(PURP) 유형 사동 구조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 절은 사건 Y이고 다른 한 절은 사건 Y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행된 사건 X이다. 사건 Y는 사건 X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건 Y는 아직 성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건 Y가 아직 성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다”는 말은 “목적(PURP) 유형 사동”이 함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g Jae Jung(1996)은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 사이에 함의성이 있을 때에만 사동문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제한된 견해라고 보았다. 그는 매우 많은 공시, 통시적 증거들이 “목적(PURP) 유형 사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PURP) 유형 사동”이 경시되거나 사동 유형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Song Jae Jung(1996)은 한국어의 “-게 하다”문을 “목적 구조”에서 발전해 나온 “목적(PURP) 유형 사동”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가 목적(PURP) 유형 사동을 다룰 때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중국어 사동문들에 대한 고찰도 없었다. 필자는 한국어 허의사동동사문인 “-게 하다”문 외에 “-도록 하다”허의사동동사문, 한국어의 모든 실의사동동사문, 중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 중 명령과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문, 중국어의 “讓, 叫”허의사동동사문이 명령과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목적(PURP) 유형 사동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는 범위는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므로 이 중에서 중한 실의

사동동사문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기로 한다.

Song Jae Jung 이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을 사동구조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은 그가 말한 목적(PURP) 유형 사동에 부합한다.

(29) 나는 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

(29-1) 나는 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는 옷을 입지 않았다.

예문 (29)는 실의사동동사 “명령하다”를 사용한 “실의사동동사문”이다. (29)는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은 “나는 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옷을 입다”이다. “나는 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라는 사건은 “그가 옷을 입다”라는 사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옷을 입다”라고 하는 사건은 “나는 그에게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사건의 목표 혹은 목적이다. “그가 옷을 입다”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성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다. 즉, 예문 (29)가 함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동문의 뒤에 피사동 사건을 부정하는 부정문을 붙인 예문 (29-1)이 성립되는 것이다. 예문 (29)와 (29-1)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이 Song Jae Jung이 말한 목적(PURP) 유형 사동의 전형적인 형식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한국어의 실의사동동사문도 사동 구조의 범위에 넣어야 하며 사동 구조 중에서 목적(PURP) 유형 사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ong Jae Jung(1996)은 목적(PURP) 유형 사동들을 고찰할 때 중국어 사동문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실의사동동사문 중에서 “명령 사동의”와 “허락 사동의”를 나타내는 사동문의 경우는 목적(PURP) 유형 사동의 전형적인 형식에 부합하므로 “목적(PURP) 유형 사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0) 我命令他起來。

(30-1) 我命令他起來, 但是他沒起來。

(31) 我允許他出國。

(31-1) 我允許他出國, 但是他沒出國。

예문 (30)는 중국어 실의사동동사 “命令”을 사용하여 “명령 사동의”를 나타낸 실의사동동사문이다. (30)은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은 “我命令他起來”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他起來”이다. “我命令他起來”라는 사건은 “他起來”라는 사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他起來”라고 하는 사건은 “我命令他起來”라고 하는 사건의 목표 혹은 목적이다. “他起來”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성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다. 즉, 예문 (30)이 함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동문의 뒤에 피사동 사건을 부정하는 부정문을 붙인 예문 (30-1)이 성립되는 것이다.

예문 (31)의 경우는 실의사동동사 “允許”를 사용하여 “허락 사동의”를 나타낸 실의사동동사문이다. (31)은 “我允許他出國”와 “他出國”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他出國”라는 사건은 “我允許他出國”라고 하는 사건의 목표 혹은 목적이다. 그리고 “他出國”라는 사건은 아직 성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리고 (31-1)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31)이 함의성을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문 (30), (30-1), (31), (31-1)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중국어에서 실의사동동사문이 명령 사동의와 허락 사동의를 나타낼 때 Song Jae Jung이 말한 목적(PURP) 유형 사동의 전형적인 형식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 논문은 이들을 사동구조의 범위에 넣어야 하며 사동 구조 중에서 목적(PURP) 유형 사동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여러 특징

### 5.1 함의성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함의성은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초래 사동의, 방임 사동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사동 사건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의 진실성을 함의한다. 반면,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사동 사건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의 진실성을 함의하지 않는다.

다음은 명령 사동의를 나타내는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예인데, 실의사동동사문 뒤에 부정문을 부가하여 피사동 사건의 내용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볼 때, 중한 실의사동문은 명령 사동의를 나타낼 때는 사동 사건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의 진실성을 함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我命令他。

(32-1) 我命令他來, 但是他不來。

(33) 나는 그에게 밥을 먹도록 명령하였다.

(33-1) 나는 그에게 밥을 먹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는 먹지 않았다.

다음은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예인데, 실의사동동사문 뒤에 부정문을 부가하여 피사동 사건의 내용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볼 때, 실의사동문이 허락 사동의를 나타낼 때에도 사동 사건의 진실성이 피사동 사건의 진실성을 함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4) 醫生允許他出院。

(34-1) 醫生允許他出院, 但是他沒出院。

(35) 선생님은 열이 나는 철수에게 집에 가서 쉬도록 허락하였다.

(35-1) 선생님은 열이 나는 철수에게 집에 가서 쉬도록 허락하였으나 철수는

결국 집에 가지 않았다.

반면, 초래 사동의 실의사동동사문과 방임 사동의 실의사동동사문은 뒤에 부정문을 부가하여 피사동 사건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실의사동동사문이 초래 사동의와 방임 사동의를 나타낼 경우에는 합의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 (36)은 초래 사동의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37)은 방임 사동의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사동문 뒤에 부정문을 부가하여 피사동 사건의 내용을 부정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6) 這突如其來的打擊導致他的妻子精神分裂。

[人民日報, 1995年, 10月份, 북경대말뭉치]

(36-1) \* 這突如其來的打擊導致他的妻子精神分裂, 但是他的妻子精神沒分裂。

(37) 我听凭我丈夫處理這件事。

(37-1) ?? 我听凭我丈夫處理這件事, 但是他沒去處理。

이상의 예들에서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합의성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5.2 사동자의 통제도와 피사동자의 통제도

### 5.2.1 사동 의미와의 관계

Lakoff(1987), Song Seokchoong(1988), 박정운(2003)은 사동자의 “통제도” 참수를 가지고 사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사동자의 통제도란 사동자가 피사동 사건을 통제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Comrie(1981/1989)는 피사동자의 “통제도”를 가지고 사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피사동자의 통제도란 “피사동자가 사동 구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정도”를



- (38) 張三命令李四走。
- (38-1) 張三命令李四走, 但是李四沒走。

- (39) 나는 그에게 집으로 가도록 강요하였다.
- (39-1)나는 그에게 집으로 가도록 강요하였으나 그는 가지 않았다.

예문 (38-1)과 (39-1)이 성립하므로 우리는 피사동자 “李四/그”가 사동자 “張三/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령 의미문은 초래 의미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사동자의 통제도가 초래 의미문보다 더 낮고, 피사동자의 통제도는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의사동동사문 중 허락 의미문의 경우는 명령 의미문보다 사동자의 통제도가 더 낮고, 피사동자의 통제도는 더 높다. 허락 의미문에서 피사동 사건은 원래부터 피사동자가 원해서 실행하는 사건이다. 사동자는 단지 피사동자가 피사동 사건을 실행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저지”할 수 있을 따름이다.

- (40) 清政府取消對天主教的禁令, 允許法國人在五個通商口岸自由傳教。
- [中國兒童百科全書, 북경대말뭉치]

- (41) 선생님은 조퇴하고 싶어하는 철수에게 조퇴하도록 허락하였다.

예문 (40)에서 피사동 사건 “在五個通商口岸自由傳教”을 실행하고 싶어하는 것은 피사동자 “法國人”이지 사동자 “清政府”가 아니다. 사동자 “清政府”는 단지 피사동자가 피사동사건을 실행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명령 의미문의 피사동 사건은 사동자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건이고 피사동자가 실현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어 허락 의미문인 (41) 역시 예문 (40)의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허락 의미문의 사동자의 통제도는 명령 의미문보다 낮고 피사동자의 통제도는 명령 의미문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의사동동사문 중 방입 의미문의 사동자의 통제도는 허락 의미문보다 낮고 피사동자의 통제도는 허락 의미문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허락 의미문의 경우는 사동자가 피사동 사건의 발생을 “허가”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방입 의미문의 사동자도 피사동 사건의 발생을 “허가”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허락 의미문보다 약하다.

(20) 所以我就不再說什麼, 聽憑他按響了門鈴。

[許建輝, 劉紹棠: 在人生的邊緣讀懂了死, 북경대 말뭉치]

예문 (20)에서 피사동사건인 “按響了門鈴”의 발생에 대해 피사동자 “他”의 바람과 통제 능력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사동자 “我”의 바람, 통제 능력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하여 실의사동동사문의 피사동 사건에 대한 사동자 통제도 등급과 피사동자 통제도 등급을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사동자 통제도 등급: 초래 의미문 > 명령 의미문 > 허락 의미문 > 방입 의미문

피사동자 통제도 등급: 방입 의미문 > 허락 의미문 > 명령 의미문 > 초래 의미문

## 5.2.2 피사동자 격과의 관계

Comrie(1981/1989)는 피사동자의 격과 피사동자 통제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터키어 등의 언어를 참고하여 피사동자 격의 통제도 등급을 다음과 같이 설립하였다.

도구격 > 여격 > 목적격

즉, 피사동자가 도구격일 때 피사동자의 통제도가 가장 높고 여격일 때 통제도는 그 다음이며 목적격일 때 통제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표준 중국어의 경우는 외현하는 격 표지가 없기 때문에 실의사동동사문의 피사동자가 어떤 격을 취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의 경우에 피사동자는 주로 주격 “-이/-가”, 여격 “-에게”, 피사동자 전문표지 “-(으)로 하여금”을 취한다. 그리고 목적격인 “-을/를”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구격 “-(으)로”를 취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어서 특별한 언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매우 어색하다.

(42) 어머니가 아이가/아이에게/아이로 하여금/아이를/아이로 옷을 입도록 명령하였다.

물론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어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필자 자신의 어감에 따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의 피사동자 격의 통제도 등급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여 보았다.

주격 “-이/-가” = 여격 “-에게” = “으로 하여금” > 목적격 “-을/-를”

## 6.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특성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정리, 비교해 보고자 한다.

### 6.1 공통점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의 공통점은 첫째, 중한 실의사동동사는 모두 순수한 사동 의미 외에 자신의 實義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모두 사동 서술어와 피사동 서술어가 독립되어 있고 두 서술어의 논항구조가 분리되어 있어서 분석적 사동에 속한다.

셋째,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모두 내포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동 서술어는 주절에, 피사동 서술어는 내포절에 들어 있다.

넷째,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명령 사동의와 허락 사동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목적(PURP)유형 사동의 전형적인 형식에 부합한다.

다섯째,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모두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함의성의 유무가 달라진다.

여섯째,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사동자의 통제도, 피사동자의 통제도 면에서 연속체를 이룬다.

## 6.2 차이점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나타내는 의미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 방임 사동의, 초래 사동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만 나타낼 수 있다.

둘째, 피사동자 격의 종류와 피사동자 격의 표지 방면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자주 사용하는 피사동자 표지로는 여격조사 "-에게", 주격조사 "-이/-가", 그리고 피사동자 전문 표지인 "-으로 하여금"이 있다.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에서 목적격조사 "-을/-를"로 피사동자를 표지하는 경우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 반면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외현하는 격 표지가 없어서 피사동자가 취하는 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朱德熙(1982/1999, 185쪽)

는 중국어 방언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사동자가 아마 "목적어"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 7.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은 사동문의 정의와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사동문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은 "명령 사동의"와 "허락 사동의"를 나타낼 때 목적(PURP) 유형 사동의 전형적인 형식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범위는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 방임 사동의, 초래 사동의"이고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범위는 "명령 사동의, 허락 사동의"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이 나타내는 사동 의미가 중한 실의사동동사문의 제반 특징, 즉 함의성 특징, 사동자의 통제도 특징, 피사동자의 통제도 특징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어 실의사동동사문과 한국어 실의사동동사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과 매우 많은 공통점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參考文獻》

- 陳小英, 帶兼語的“使”和“讓”之比較, 《廣西社會科學》, 第2期, pp.156-158, 2005.
- 崔健, 《韓漢范疇表達對比》,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2.
- 崔健、孟柱億, 《漢韓語言對比研究(1)》,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7.
- 鄧守信, 漢語使成式的語義, 《功能主義與漢語語法》, 北京語言學院出版社, pp.1-14, 1994.
- 范曉, 論“致使”結構, 《語法研究和探索》10, 商務印書館, pp.135-151, 2000.
- 郭銳, 述結式的配價結構和成分的整合,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p.168-191, 1995.
- 郭銳, 致使的語義類型和“把”字句的語義差異, IACL-17論文, 巴黎, 2009a.
- 郭銳, 《語言類型學講義》, 第五章, 致使結構, 2009b.
- 郭銳、葉向陽, 致使的類型學和漢語的致使表達, 第一屆肯特崗國際漢語語言圓桌會議論文, 2001.
- 郭姝慧, 《現代漢語致使句式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論文, 2004.
- 金海月, 《漢朝致使范疇對比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論文, 2007.
- 金海月, 韓國漢語學習者“使”字結構習得考察, 《中國教育與研究》, 第八期, 2008, 11.
- 賀曉玲, 《兩種表致使義句式的異同考察-“使”字句和“把”字句》, 暨南大學碩士論文, 2001.
- 胡裕樹、范曉, 《動詞研究》, 河南大學出版社, 1995.
- 胡云晚, 帶兼語的“使”和“讓”之比較研究, 《松遼學刊》, 第一期, pp.85-93, 2002, 2.
- 李大忠, “使”字兼語句偏誤分析, 《世界漢語教學》, 第1期, pp.76-79, 1996.
- 李晉霞, 試論“使”字兼語句向複句的演變, 《漢語學報》, 第二期(總第14期), pp.40-47, 2006.
- 李臨定, 《現代漢語句型》, 商務印書館, 1986.
- 劉成章, 《“使”字句的句法語義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05.
- 劉永耕, 使令類動詞和致使詞, 《新疆大學學報》, 第28卷, 第1期, pp.93-96, 2000a, 3.
- 劉永耕, 使令度和使令類動詞的再分類, 《語文研究》, 第2期(總第75期),

pp.8-13, 2000b.

- 劉云, 《北京話使役兼表被動現象研究-以“讓”和“給”爲個案》, 語言大學碩士論文, 2006.
- 劉中華, 淺談現代漢語“使”字句的特点, 《延安教育學院學報》, 第4期, 總第38期, pp.31-33, 2002.
- 劉中華, 現代漢語“使”字句與一般兼語句的區別, 《广西社會科學》, 第7期, pp.153-155, 2005.
- 馬慶株,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大學出版社, 2004.
- 牛順心, 《漢語致使范疇的結構類型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論文, 2004.
- 朴恩石, 《漢韓分析型致使結構比較研究》, 北京大學博士論文, 2010.
- 沈陽、何元建、顧陽, 《生成語法理論與漢語語法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 施文志, “使”字句的結構研究, 《云南師範大學學報》, 第2卷, 第五期, pp.64-66, 2001, 10.
- 孫周延, 《漢韓致使表達方式的比較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2006.
- 譚景春, 使令動詞和使令句, 《語法研究和探索(7)》, 商務印書館, pp.129-138, 1995.
- 宛新政, 《現代漢語致使句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05.
- 王力,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1943-1944/1985年重印.
- 邢欣, 《現代漢語兼語式》,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4.
- 熊仲儒, 《現代漢語中的致使句式》, 安徽大學出版社, 2004.
- 徐燕青, “使”字句與“把”字句的異同考察, 《世界漢語教學》, 第4期(總第50期), pp.52-58, 1999.
- 姚肖鶯, 漢語三種致使句的致使性等級考察, 《漢語語法的認知與功能探索》, 張旺熹主編,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2007.
- 游汝杰, 現代漢語兼語句的句法和語義特征, 《漢語學習》, 第6期, pp.1-6, 2002, 12.
- 張敬兒, 《X+使+Y+VP格式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2002.
- 周紅, 《現代漢語致使范疇研究》, 夏旦大學出版社, 2005.
- 朱德熙, 《朱德熙文集一,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1999.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asil Blackwell, 1981/1989.

Comrie, 《語言共性和語言類型》,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 Typology》翻譯本, 沈家煊譯, 華夏出版社, 1989.
- Dixon, A typology of causatives: form, syntax and meaning,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0-83.
- Givón, T., Irrealis and the subjunctive, SiL 18, pp.265-337, 1994.
- Gu Yang, 《The Syntax of Resultative and Causative Compounds in Chinese》, Ph.D. Cornell University, 1992.
- Karttunen, Implicative verbs, 《language》, Vol.47, No.2, pp.340-358, 1971.
- Lakoff,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7.
- Li and Thompson, Development of the Causative in Mandarin Chinese: Interaction of Diachronic Processes in Syntax, 《Syntax and Semantics》, Edited by Shibatani, Academic Press, Vol.6, pp.477-492, 1976.
- Li, Yafei, Cross-Componential Causativ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17, pp.445-497, 1999.
- Park Jeongwoon, 《Morphological Causatives in Korean : Problems in Grammatical Polysemy and Constructional Relations》, 태학사, 1994.
- Shibatani, Lexical versus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Published for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9, No.2, pp.281-297, 1973.
- Shibatani, The Grammar of Causative Constructions : A Conspectus 《Syntax and Semantics》, Academic Press, Vol.6, pp.1-40, 1976.
- Shibatani, Introduction, Some basic issues in the grammar of causation,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1-22, 2002.
- Shibatani and Pardeshi, The causative continuum,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85-126, 2002.
- Song Jae Jung, 《Causatives and Causation》, Longman, 1996.
- Song Jae Jung, 《Linguistic Typology:Morphology and Syntax》, Pearson Education, 2001.
- Song Seokchoong, Perception or Reality? Korean Causatives Reexamined, 《Explorations in Korean Syntax and Semantics》, Berkeley : Center for Korean Studies. pp.180-225, 1988.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1: Concept Structure Systems, The MIT Press, 2000.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The MIT Press, 2000/2001.
- Whaley,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 Inc. 1997.
- Yang Inseok,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ek Hap Sa, Seoul, Korea, 1972.
- Yang Inseok,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10, No.1, pp.83-117, 1974.
- Yang Inseok, Semantics of Korean Caution, 《Foundations of Language》, Dordrecht, Boston, Vol.14.1, pp.55-87, 1976.
- 박미정, 《현대 중국어의 사동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1.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5/1971.
- 김건희, 《일본어와 한국어의 사동법 대조 연구 - 언어 유형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석사논문, 2000, 2.
- 김형배, 《국어의 사동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7.
- 김성주, 《국어 사동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7.
- 김성주, 《한국어의 사동》, 한국문화사, 2003.
- 고영근,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 구조, 《한글》, p.192, pp.43-74, 1986.
- 고영근, 남기십,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2005.

- 허성도,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2005.
- 이익섭,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2001.
- 이익섭, 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원형의미론적 접근-, 《언어》, Vol. 28, Number 3, pp.345-371, 2003.
- 류성기, 《국어 사동사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1993.
- 서정수, 《국어문법》, 후룡강조선민족 출판사, 2006.

사전류: 標準國語大詞典, 인터넷 사전

말뭉치: 21世紀世宗計劃 말뭉치  
北京大學 말뭉치

### 《中文提要》

本文研究漢語實義致使動詞句和韓國語實義致使動詞句的特征及其對比。有的學者把漢韓實義致使動詞句排除在致使句的範圍之外,但是本文主張漢韓實義致使動詞句滿足致使句的成句條件,所以應該把它們包括在致使句內。類型分類上漢韓實義致使動詞句屬於分析型致使。而且表達“命令義”和“允許義”的漢韓實義致使動詞句屬於“目的(PURP)類型”致使。本文闡明了漢韓實義致使動詞句能表達的語義範圍。也闡明了漢韓實義致使動詞句表達的語義和漢韓實義致使動詞句的各種特征(比如,蘊含性特征、致使者控制度特征、被致使者自控度特征)之間的關聯。最后指出了漢語實義致使動詞句和韓國語實義致使動詞句之間的共同點和不同點。

**關鍵詞** : 致使, 分析型致使結構, 漢語實義致使動詞句, 韓國語實義致使動詞句, 漢韓對比

이 논문은 2011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